

| 인권 자료실 |     |      |
|--------|-----|------|
| 등      | 호   | 자료번호 |
| 98     |     |      |
| 2/20   | A11 | 19   |

# 노동자와 동성애 (1)

서동진 / 문화평론가, 게이 인권운동가

**독**자들은 어떤 모습인가? 어디를 봐도 여전히 예쁜 색시를 둔 신혼 초기의 노동자. 그다지 예전만큼 아릿한 그리움이 나 상쾌한 즐거움은 없어도 같이 있으면 편하고 든든한 마누라를 둔 짬밥 지긋한 노동자 아저씨. 십분이라도 떨어져있는 시간이 아깝고 야속하기만 한, 그저 보고싶은 애인의 얼굴이 아른거리는 총각 노동자. 물론 이와 반대의 처지에 놓인 여성노동자들. 모두들 이런 사랑과 결혼만이 유일하고 바람직하다고 생각할 것이다.

하지만 사정은 절대 그렇지 않다. 주변에는 알게 모르게 수많은 동성애자 남녀 노동자들이 함께 일하고 살아간다. 그들은 흔히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작은 수가 절대 아니다. 이들은 자신이 노동자이기 때문에 다른 동성애자들보다 갑절 더 동성애자로

살기 힘들고 가혹하다고 믿고 있다. 그리고 그 동성애자 노동자들이 생각하는 것은 절대 그렇지 않다.

## 호모와 게이의 차이

어리둥절하게 생각할지 모를 몇가지 오해부터 밝혀보자. 여러분들은 동성애자를 가리키는 이름을 귀동냥으로 들은 적이 있을 것이다. 어떤 이는 '내 눈으로 동성애자를 직접 본 일이 있다'고 너스레를 떨면서 '내가 아는 동성애자는...'하고 한자락 이야기를 뿜어낼 지도 모른다.

그럼 여러분들이 가진 생각이 썩 옳은지 따져보자. 동성애자에 관한 말 중 호모나 게이같은 말들이 있을 게다. 호모는 뭐고 게이는 또 뭘까. 이 두 말은 사실 같다. 그런데 대개 이 두가지가 아주 다른 이름이라 생각한다. 물론 그 말이 달고 다니는 동성

애자에 대한 태도나 가치를 따지면 아주 다른 말이긴 하다.

호모란 남자를 좋아해서 남자와 같이 잠을 자고 섹스를 하는 남자를 떠올릴 것이다. 게이란 여장남자나 지극히 여자같은 태도나 외모를 하고, 또 그렇게 하길 좋아하는 남자들이라고 생각할 테고. 하지만 그렇지 않다. 게이란 동성애자가 아니라 성 전환자나 이성복장착용자라 부르는 사람들이다. 까짓것 이거나 그거나 변태이긴 매일반이라고 우긴다면 달리 할 말은 없다. 하지만 이 글의 제목이 솔깃해서 읽었고, 또 그것이 노동자의 삶과 어떤 끈이 닿아있다고 한번쯤 생각하며, 자신과 성(性) 정체성이 다르다고 함부로 무시하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한다면, 두 말을 똑같이 이해해선 안된다.

성 전환자란 자신의 생물학적 성(性)과 반대되는 이성(異性)과

자신을 동일시하고, 행동하는 사람들을 가리킨다. 이를테면 분명히 페니스라는 남자들이 달고 다니는 외(外)생식기를 가졌고 XY 염색체를 가졌음에도 자신이 여자라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사람이라면 남자 성 전환자이다. 영어로는 트랜스젠더드(the transgendered)나 트랜스섹슈얼즈(the transsexuals)라 부른다. '젠더'는 성에 따른 역할이 바뀌었다는 것이고, 뒷말은 자신의 생물학적인 성과 달리 뒤바뀐 성을 가진 사람을 가리킨다.

이 두가지는 조금 다른 의미이다. 성과 성별이라는 개념이 전혀 다르고, 각각이 가리키고 뜻하는 바의 차이 때문에 보수적이고 진보적인 차이를 지닌다. 이번 글에서는 이쯤해 두고 다음 기회에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얘기되겠지만, 어쨌든 요즘엔 트랜스젠더드란 말이 많이 쓰이고 있다는 점을 밝혀둔다.

결국 한 통속의 동성애자로 생각하는 게이들은 정작 동성애자와 전혀 다른 성 전환자이다. 하지만 우리는 멀쩡하게 사내(?)처럼 생기고 말하고 행동하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동성애자들이란 말을 들으면, 막무가내로 동성애자들이 '계집애 같을 거'라고 은연중에 믿어버린다. 텔레비전이나 영화나 한결같이 코메디가 소리를 내고, 우스꽝스럽게 행동하

는 모습으로 동성애자를 묘사하기 때문이다.

### 동성애자에 대한 편견들

동성애자를 계집애 같은 남자, 혹은 사내 같은 여자로 오해하고 상상하게 만드는 원인은 뭘까. 크게 보아 남자다움과 여자다움이라는 성에 따른 사회적 역할에 대한 기대와 신념 때문이다. 남자는 남자로서, 여자는 여자로서 각각 따로 해야 할 일이 있고, 남녀가 맺는 인간관계에서 취할 역할과 힘이 분배되어 있다고 믿는다. 그러나 남녀관계는 자신들만이 살아가는 세계를 통해 정의되지 않는다. 연애나 결혼 혹은 가족관계를 통해 직접 접하고 또 함께 생활하건 안하건, 남녀는 상대방을 전제함으로써 정의되기 마련이다. 따라서 자신의 여자다움이나 남자다움은 자신이 여자거나 남자여서 자연스럽게 생기는 본성이거나 운명이 아니라, 바로 여성은 남성들과, 남성은 여성들과 맺게되는 사회관계에 따라 정의되고 결정된다.

이렇게 보면 동성애자들을 그토록 여자같은 남자, 남자같은 여자로 상상하는 데는 이유가 있다. 동성애자들에게는 자신의 남자다움, 혹은 여자다움을 정의하기 위해 필요불가결한 이성(異性)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들을 성 정체성을 달리하는 한

명의 남자 혹은 여자로 받아들이는 데 여간 난처한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리고 '이성애자(異性愛者) 남자나 여자'와 다른 부류라면 뭔가 달라도 다른 구석이 있을 것으로 스스로를 설득한다. 게다가 문제는 성이란 것이 아닌가. 그러니 슬그머니 이들이 어딘가 상대방 성인 여성이나 남성의 특성이 있어 그럴 것이라 간주한다. 따라서 동성애자는 상대방인 이성(異性)과 닮아버렸거나 그를 흉내내는 인간이라 믿겨지게 되는 것이다.

결국 많은 사람들이 동성애자를 경계하거나 혐오하는 건, 그들이 동성과 사랑을 나누고 성관계를 맺기 때문이 아니다. 바로 남성과 여성이라는 성별에 따른 역할과 규범을 절대적으로 고수하려는 무의식적인 힘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는 동성애를 몇가지 성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의 인간형, 즉 사회적으로 정의된 독특한 행동과 태도, 관습과 규칙이라 본다. 즉 동성애란 남자나 여자들끼리 하는 성교를 가리키는 게 아니라, 자신과 타인을 생각하는 방식이나 그에 따른 행동에서 독자성을 가졌다는 걸 의미한다. 결국 동성애란 성 행동이 아니라 성 정체성이라 부르게 되는 것이다.

### 동성애란 성 행동이 아니라

## 정체성

정체성이란 자신을 스스로이게 하고 다른 사람들과 구별되게 하는 것이다. 일하는 사람들은 노동자라는 정체성을 가진다. 자신이 소득을 얻고 생활하는 방식에서 다른 사람과 구분되는 특징이 노동자라는 것이다.

이렇듯 동성애자도 성이란 영역에서 자신을 다른 사회집단과 나누고 자신을 스스로이게 하는 특징을 가지는 셈이다. 결국 동성애란 본성도 운명도 아니지만 그렇다고 특별한 성 행동을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다(그래서 동성애자가 '성 취향'이 다른 사람이라 말하는 건 옳지 않다). 그들은 성의 영역에서 사회적 규칙과 관습을 만들고 또 변형시켜가는 독자적인 정체성의 사회집단이다.

호모란 호모섹슈얼즈의 준말이다. 그대로 옮기면 동성애자인데, 약 100여 년 전부터 쓰기 시작해서 1950년대 들어 널리 쓰이게 되었다. 이 말은 세상엔 이성애자와 동성애자가 있다는, 짐짓 그 어떤 차별과 억압의 의도가 없는 중립적인 용어처럼 보인다. 하지만 절대 아니다. 이 말에는 동성애를 육체적이든, 정신이적이든 병에 걸려있다고 보는 말이다. 변태란 흔히 생각하듯 도덕적으로 잘못된 사람이 아니라 말 그대로 자신의 육체와 정

신이 변형되어있는 병신이란 뜻을 담고 있다. 당연 동성애자 역시 그런 의미를 지닌다.

그래서 60년대와 70년대 서구와 3세계의 동성애자들은 자신들을 병신으로 몰고 강제로 치료와 교정을 요구하던 사회의 제도와 싸웠다. 그래서 당당한 인간으로서의 권리를 쟁취하기 위해 스스로를 게이라 불렀다. 밝은, 낙관적인, 활력있는 따위의 뜻인 게이란 말로 스스로를 지칭했던 것이다. 따라서 게이란 성 전환자가 아니라 동성애자들이 노동운동처럼 자신의 권익과 인권을 위해 싸운 결과 얻어낸 동성애자의 자긍심이 담긴 이름이다.

지금까지 동성애자를 가리키는 두 가지의 이름과, 그것이 각각 가리키는 바가 무엇인지 살펴보았다. 그리고 동성애자에 대한 이해를 위해 어떤 태도가 필요한지 어렵으로 얘기했다. 다음에는 동성애란 문제가 노동자로서의 삶과 어떤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는지 살펴볼 것이다. 그리고 노동운동은 동성애의 문제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옹호하는지도 알아볼 것이다.

아마 여러분들은 노동자의 삶이 이성애란 제도(?)를 지탱하기 위한 삶이기도 하다는 놀라운 사실을 발견할 수 있으리라. ■

## 살림터가 떠난 북한 바로알기 책들

### ◆ 벗

백남룡 소설집 값 5,500원  
북녘 30대 부부의 이혼문제를 섬세한 필치로 그린 북녘 중견작가 백남룡의 소설집.  
북녘에서는 베스트셀러, 남녘에서는 스테디셀러가 된 화제작

### ◆ 쇠찌르레기

북한 우수 단편집 I 값 6,000원  
북녘 사람들의 이산의 아픔, 통일염원, 교육문제, 사회의식 등 생생한 생활상을 담고있는 북한 우수 단편집 I

### ◆ 삐죽새가 노래하는 곳

북한우수 단편집 II 값 5,500원  
90년대 북녘 사회의 여성문제, 사랑문제, 농촌문제, 과학기술문제, 관료주의, 세대간의 갈등, 노동문제, 통일문제 등을 그린 북한 우수 단편집 II

### ◆ 내가 만난 북녘 사람들

홍정자 지음 값 5,500원  
북녘 사람들의 인간적인 삶의 모습을 담은 홍정자씨의 북녘

### ◆ 상속받은 나라에 가다

이충렬 지음 값 5,500원  
김일성 주석 사후, 북녘 현지의 표정을 작가의 날카로운 시각으로 포착한 북녘 취재기